

하이테크밸리 산단 2단계 조성 '본격화'

삼남면 가천리 일원 57만6천㎡, 손실보상 협의 시작 울산형 스마트 뉴딜사업 선정... 2023년 완공 목표

울산시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1차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1천808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에 부지 194만㎡ 규모로 3단계로 나눠 2006년 착수,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조성사업은 1천318억원을 들여 부지 57만6천㎡ 규모로 2023년 준공한다.

유치 업종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금속가공, 기타 기계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울산형 뉴딜 정책으로 하이테크밸리 산단 2단계 사업의 조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시 시는 기업 맞춤형 특화산단을 조기에 개발해 기업 입주 공간을 적기에

제공하고, 2차 전지와 ESS(에너지 저장 장치), 첨단소재, 수소 산업 등 신산업과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내년 예정한 부지 보상 절차를 올해 4월 보상계획 공고로 일찌감치 시작했고, 사업 기간 역시 1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산단을 경제자유구역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산·학·연이 연계한 연구개발 중심 첨단 산단으로 조성하고,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특례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미래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시는 하이테크밸리 산단(1·2단계) 조성으로 4천600명 고용유발 효과, 4천200억원 생산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1단계 조성사업은 2018년 2월



울산시는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1차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사진은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에 조성 중인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울산시

준공돼 이미 분양 중이다. 3단계 조성 사업은 부지 113만2천㎡ 규모로 실수요자 개발 방식에 따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삼성SDI가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 울산형 스마트 뉴딜사업으로

선정해 미래 차, 에너지, 연구개발(R&D) 중심의 신산업에 특화된 첨단산업단지 조성할 방침"이라며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길 기자

시, 정부 지원 제외 택시 종사자 지원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울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지역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해 울산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송철호 시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택시 운수종사자는 3천200여명 정도다.

시는 이들 개인 및 법인 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 총 32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책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택시 분야도 지원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택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울산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이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시 운수종사자다.

송철호 시장은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택시 종사자분들 삶살살이에 단비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산림청, 울주군 산불 피해지역 복구 추진

여름철 집중호우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 지역 우선 복구

산림청이 지난 3월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3~5월 발생한 울산 울주와 경북 안동, 강원 고성 등 산불 피해지역 3곳에 총 700여억원을 들여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우선 복구한다.

지역별 피해면적과 산림피해액은 △울주 519ha, 25억4천800만원 △안동 1천944ha, 208억9천800만원 △고성 123ha, 24억5천900만원 등 총 2천586ha에 259억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비 523억7천500만원과 지방비 179억7천200만원 등 703억4천700만원을 들여 복구 작업에 나선다. 복구 조립에 637억7천600

만원, 사방댐 등 산림시설 설치에 65억7천1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먼저 올해 안으로 생활권 주변 지역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돌방댐, 흩막이, 사방댐 설치 등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을 진행한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예산 370억3천200만원으로 민가 주변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와 황폐계류지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등 항구적 복구사업을 계속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인 울산시, 경북도, 강원도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술 조언을 받아 피해지가 원활히 복구되도록 한다.

성봉석 기자



울산시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본부장,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장태준 기자

市, 고위공직자 적극행정·청렴서약식 개최

송철호 시장·간부 공무원·산하기관장 등 참석... 모범사례 앞장 결의 다져

울산시가 행정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결의 대회를 가졌고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식을 통해 보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 대회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공무원들과 구·

군 부단체장, 시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해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과 창의적인 정책의 개발로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적극행정 실천 다짐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면책·보호·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

켜 시민이 공감하는 혁신적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앞서 시는 올 초 마련한 2020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자 역량 교육과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협업과 공유에 기반한 시민 체감형 행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같은 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시는 '고

위공직자 청렴 서약식'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위공직자들이 청렴 실천을 통해 청렴 리더십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 서약은 울산시 고위공직자로서 △법과 원칙 준수 △사익보다 공익 우선 △지위·권한 남용 금지, 이권 개입과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 5개 항목 준수를 통해 '부패 없는 청렴 울산'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청렴 서약을 통해 모든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울산시는 돌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병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재선충특별반, 현장예찰 진단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며 예찰을 강화하고 조기 방제를 통해 철저히 대응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총괄반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전

반적인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주요 임무로 한다. 재선충특별반은 소나무류 고사목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시행하고 하반기 방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현장예찰진단반은 병해충 현장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진단 및 현미경 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참나무 시들음병, 솔껍질 깎지벌레 등 산림병해충은 물론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적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길 기자

2020 울산제일일보 공익광고 - 2

대한민국 위기극복 DNA,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재난취약계층 및 위기 가정 긴급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은행 530-07-0133630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문의전화 : 052)210-9551~4